

괴테 색채론의 의의

A Definition of Color theory in Goethe

박 연실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학과, 강남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Park, Yeon Sill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Dept. of Aesthetics Graduate School of Hong Ik University

• Key words: Goethe, Newton, Color, Nature, Intuition, natural phenomenon, ecology

1. 서론 — 괴테 색채론의 현대적 의미

포스트 모던 시대에 괴테의 색채론이 주는 의미를 정리하여 보았다. 19세기 초엽인 1790-1810에 이루어진 괴테의 『색채론』은 이태리를 여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예술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집필된 것이다. 유명작품의 채색에서 규칙과 법칙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연구를 진척시킨 것으로 보아 가장 예술론에 근접한 색채학 문헌의 효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괴테 당대에는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인문학적인 그의 색채론이 거의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단 하나 색채의 심미적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病理色에 대한 그의 독창적인 설명이 일부 화가들과 생리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물리학의 주류로부터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산업사회의 모순이 심해지고, 도구적 사고방식과 무한 성장에 의한 문명의 자기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되면서 물리학자들과 색채 이론가들에 의해 괴테의 색채론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데카르트와 갈릴레이, 그리고 뉴턴에서 출발한 자연과학의 기계론적,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 초래할 위험성을 괴테의 색채론은 이미 예언하였다는 평가이다. 그런 점은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자성과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일례로 청계천의 복원 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다. 문명에서 얻게되는 경제적인 이윤과 편리만을 쫓다 보니 원시자연이 주는 힘과 정화는 잃게된 것이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계곡을 다시 복원한다고 했을 때 생태학자들과 친환경 학자들의 고된 노력은 그 수고를 인정받게 되었으니, 본래대로의 자연과 환경 속에서 괴테의 표현을 빌리자면 原現象을 다시 누리게 된 것이다.

당대에 괴테의 색채 이론이 인정받지 못하고 바로 근대 자연과학의 주류와 대척관계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재조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연을 조작과 지배, 정복의 대상으로 본 것이 결국은 자기 파괴라는 위기를 모면키 어려운 현대의 기술문명과 자연과학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써 괴테의 색채론이 주목을 받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괴테의 저서 『색채론』을 중심으로 색의 분류와 구성원리, 기본개념을 본론으로 넣고, 결론은 그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뉴턴의 사고방식을 괴테와 차별화시켜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 점은 서론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2. 기본개념으로서 原現象(natural phenomenon)

괴테의 색채론은 자연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지각하게 된 현상들을 수집하고 정돈해 나가면서 그런 현상이 생겨난 불가결한 조건들을 세세하게 밝히는 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로부터 색채현상의 규칙과 법칙을 논리적 추론이나 가정을 통해서 오성에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직관에 의하여 풀이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러한 자연 관찰과 실험, 기록, 그리고 정리를 통해서 알려진 그의 용어 原現象은 말 그대로 원래의 현상이다. 이를테면 빛과 밝음, 암흑과 어둠, 흐름이라는 원현상이 있으며, 이러한 대립들로부터 서로 간에 다른 색채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괴테에게서 색의 생성은 빛과 암흑의 대립관계에서 생겨난다. 즉 빛으로부터 노랑색이 생겨나며, 암흑으로부터 파랑색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 두 색은 순도가 높아지면서 각각 빨강색이 된다. 이것이 기본색이다. 이 설명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생리학자 푸르킨에의 현상에서도 그대로 설명된다. 이를테면,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올 무렵에 붉은 공이 푸르게 보이는 사실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괴테는 직관에 비친 원현상의 배후로 들어가면 인간의 감각과는 동떨어진 추상화의 위험이 따른다고 염려한다. 이러한 원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은 '경탄'밖에 없으며, 인간에게 적합한 인식과 직관의 형식으로 간주하였다. 자연의 힘은 괴테가 말하는 바 자연언어(Natural speech)를 통하여 모습을 나타내는데, 언제나 모순 양립적인 형상으로 파악된다고 한다(739번 참조).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결합 가능한 근원적 분리를 암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분리 가능한 근원적 통일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즉 결합된 것을 분리시키고, 분리된 것을 결합시키는 것이 자연의 생명이다. 이것은 영원한 수축과 팽창, 영원한 결합과 분리며,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활동하며 존재하는 세계의 들숨과 날숨이다".

요컨대 괴테가 말하는 원현상은 인간의 직관을 매개로 하여 드러나는 모순 양립적인 자연의 형상이며, 이러한 원현상의 개념이 자연관찰에 있어서 인간의 감각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강조하는 괴테 사고방식의 토대이다. 이러한 원현상을 매개로 하여 외부세계와 내부 세계는 일종의 조응관계, 또는 일치관계를 드러낸다. 즉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내부와 자연은 서로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다.

3. 색의 분류: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

괴테가 언급하는 생리색은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보고, 현대 색채학에서 말하는 보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가 실험한 생리색의 예는 흰색 판지 위에 노랑색을 놓았다 치면, 잠시 후 청자색이 나타나고, 주황색이었다면 파랑이, 자주색이었다면 녹색이 나타난다(49번 참조). 이 때 먼저 놓은 색은 유도했다고 해서 유도색(誘導色), 뒤에 나타난 색은 피유도색(疲誘導色)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색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실험에 참여한 본인만 느껴지는 것이지, 제 삼자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것보다는 감각적인 생리적인 측면의 색, 즉 주관과 객체 사이의 관계에서만 관찰 가능한 색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물리색은 생리색보다 더 객관적인 성격을 띄는데, 기령 특정한 매질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이른바 굴절색 같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태양은 흰색이지만, 흐린 매질을 통과하면 노랑색으로 나타난다. 또 암흑은 흐린 매질을 통과하면 파란색으로 보인다. 일출과 일몰 시에 하늘이 불그스레하게 보인다는지, 멀리 있는 풍경이 푸르스름한 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적절한 예이다.

그 다음으로 화학색은 가장 객관적이며 지속적이며 내재적인 속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강철은 불에 달구면, 황색에서 적색을 거쳐 청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색의 스펙트럼을 보이는데, 이것을 괴테는 색상환으로 표현했다. 화학색은 주로 산과 알카리의 대립으로 생겨난다고 하는데, 황색은 산의 속성을, 청색은 알카리의 속성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4. 구성원리: 양극성, 상승, 총체성

괴테가 색채 현상들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양극성 원리는 자연의 원리이다. 빛과 암흑이 함께 작용하면 어느 쪽의 활동이 우세한가에 따라서 색채는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 대립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호로 표기한다. 플러스에 속하는 것은 노랑, 작용, 빛, 강함, 따뜻함, 가까움, 밀집, 산이고, 마이너스에 속하는 것은 청색, 탈취, 암흑, 어두움, 약함, 차가움, 멎, 끌어당김, 알카리를 들고 있고 있는데, 이 모두가 원현상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 상승의 원리는 프리즘을 통해보는 가시광선의 예에서 관찰할 수 있다. 즉 노랑은 주황을 거쳐 빨강으로 상승하고, 파랑은 청자색으로 상승한다. 상승된 대립색들인 빨강과 청자색이 결합하면 보라가 된다. 그리고 기본색인 노랑과 파랑이 결합하면 녹색이 된다. 이로서 다양한 색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색상환이 완성된다.

총체성의 원리는 양극성과 상승의 두 원리에 의해 생겨난 색들이 대립과 조화된 모습을 색상환의 원주상에서 보이며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노랑에 의해 유도된 청자색에는 빨강과 파랑이 들어 있으며, 파랑에 상승하는 주황색 속에는 노랑과 빨강이 들어있고, 녹색은 파랑과 노랑의 결합이며 빨강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처럼 결합된 구성요소들이 총체성 속에서 그 조화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색채 현상의 이러한 총체성은 시각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자연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괴테의 관찰과 직관은 생태학적인 그의 사고방식을 예증한다.

5. 결 론 — 도구적 합리주의와 생태론적 직관주의

도구적 합리주의는 물리학자 뉴턴의 색채론을 언급할 때 지칭되는 사고방식이며, 생태론적 직관주의는 괴테 색채론에 대한 사고방식으로서 두 사람간의 차별을 언급하려 한다.

물리학적이고 광학적인 측면에서 색채학에 미친 뉴턴의 공적은 가히 가공할만하다. 우선 그는 프리즘을 통해 본 가시광선의 7가지 무지개 빛을 음악의 7가지 화성에서 빌려옴으로서 음악과 미술의 공통언어를 개진시켰다. 뉴턴은 갈릴레이 이래 자연과학은 수학적 기술에 의해서 자연의 영역을 통일적으로 파악하였던 「광학」에 괴테가 것처럼 거부감을 가졌던 이유는 근대 과학의 토대인 합리주의와 도구주의 방법론 때문이라고 그들의 후학에 의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기령 하이젠 베르크가 1941년 부다페스트의 한 강연에서 발표한 논문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본 괴테와 뉴턴의 색채론」에서 “근대 자연과학의 커다란 오류중의 하나는 현실을 객관과 주관 세계로 분리하고,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 세계를 수학적 방법으로 인공적인 관찰 수단을 통해서 궁극까지 밀치고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기만적인 희망이었음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원자 물리학에서 관찰이 관찰 대상에 미치는 변형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고도로 정밀한 관찰 기구들을 통해서 본 像은 행동하는 자연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었고, 자연과학은 실험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이 세계의 어두운 배후만을 다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물리학자가 자신의 기구를 가지고 관찰하는 대상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라고 한 괴테의 말이 현재 옳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이 입증하고 있듯이, 자연의 기본 구조 자체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직관에 의해서든, 이성적 추리에 의해서든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이젠베르크는 두 사고방식 사이의 궁극적인 공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시인으로서 괴테는 “인간의 손으로 건드려서는 안되는 근본적이고 건강한 감각이야말로 모든 진정한 원현상을 직관할 수 있으며, 가장 심오한 생태론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괴테는 경탄의 감정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이 原現像이며, 그것들을 넘어서서 사유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월권으로 보았다. 시적 사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경외심의 바탕에는 어떤 인공적인 조작 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세계의 근원적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대한 본능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문화의 비극성은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총체성에 대한 직관으로부터 오는 신비한 경험이나 시적인 감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무엇이든 측량하고 조작하고 분해하려는 욕망에 지배되어 있는 인간들을 양산하는데 있다. 괴테가 세계를 주의깊게 응시하면서 이론화하는 태도는 관찰의 주체와 대상의 유기적 연관성을 놓지 않고, 이론과 경험의 간격을 좁히려는 의도로서 자연과학 연구 방법에 일관되게 견지되는 사고체계이다.

참고문헌

- John Wolfgang von Goethe, Zur Farbenlehre, 색채론, 장희창 옮김, 민음사, 2003.
- Faber Birren, 색채 심리, 김 화중 역, 동국출판사, 1985.